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교전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곽 동 화 (Kwak, Dong Hwa)**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 왕실 발원본 |
| 2.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의 선정과 현황 | 분석 |
| 3. 태종, 세종, 문종 시대 왕실 발원본 | 6. 결 론 |
| 분석 | <참고문헌> |
| 4. 세조 시대 왕실 발원본 분석 | |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왕실 발원의 불교전적이 조선 사회와 불교계에 불교사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 사성 및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현재 총 56종이 전해지는데, 성종대 19종, 세조대 17종, 세종대 11종, 연산군대 4종, 태종대 3종, 문종대와 예종대는 각 1종이다. 주제별로는 경전류가 29종으로 가장 많고,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10종, 의식의례집 6종, 장소류 6종, 한국찬술류 5종이다. 이 중 한글 편찬본은 3종, 국역본은 11종이다.

시기별 왕실 발원본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종대에는 태상왕 태조가 간행한 『능엄경』, 『묘법연화경』 2종과 익안대군이 태조와 정종, 태종의 수복,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이 전해진다. 둘째, 세종, 명종대에는 세종 명찬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웅기』, 『묘법연화경』이 모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왕실에서는 효령대군,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영응대군과 후궁 신빈 김씨에 의해 왕실 구성원의 장수 및 명복을 빌기 위한 사성 및 간행이 이루어졌다. 셋째, 세조대에는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간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증보·수정한 후 이를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훈민정음 초기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능엄경』 언해본은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원각경』은 을해자로 간행한 한문본과 을유자로 간행한 언토본이 있다. 왕실에서는 의경세자 비 한씨와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발원한 『묘법연화경』이 각 1종씩 전해진다. 넷째, 예종, 성종, 연산군대 왕실 발원본은 모두 왕실의 대비와 공주에 의한 간행되었다. 성종대에는 정희대왕대비와 인수대비가 선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고 성종과 성종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정희대왕대비는 세조 때 국역하고 교정하지 못한 『금강경삼가해』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 언해본을 학조에게 교정하게 하여 내수사에서 간행하였다. 인수대비는 학조가 국역한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을 간행하였다. 연산군대에는 인수대비와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불교전적을 인출하였다.

要語: 왕실 발원본, 조선 왕실, 불교전적, 왕실불교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kdh0223@hansung.ac.kr) (제1저자)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5월 18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7일

서지학연구, 제74집, 207-237,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20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the early Joseon period's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henceforth referred to as wangsilbon, in passing on Buddhist thinking and knowledge in Joseon society and the Buddhist world. In order to do this, I studied the state of the wangsilbon from the time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analyzed the copying and publishing process as well as their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currently 56 wangsilbon volum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By period of reign, Seongjong's reign holds the greatest number with 19 volumes. It is followed by 17 volumes in the reign of Sejo, 11 for Sejong, 4 for Yeonsangun, 3 for Taejong, 1 for Yejong and 1 with Munjong. By theme they are classified into 29 Buddhist scriptures, 11 volumes related to Zen and Cheontae Buddhism, 6 volumes on ceremonies and rituals, 6 commentaries and 5 volumes of Korean Buddhist works. Of these, 3 are Hangul compilations and 11 are Korean translations.

Analysis results of the wangsilbon by perio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re are the two publications *Neungeomgyeong* and *Myobeopyeonhwagyeong* by Taesang King Taejo and *Gamjieuunnimyobeopyeonhwagyeong* sourced by Grand Prince Ikan to pray for the long life and peace and the repose of the souls of Taejo, Jeongjong, Taejong and Queen Shinui. Second, in the Sejong and Myeongjong eras, the Sejong Myeongchanbon *Seokbosangjeol*, *Wolincheongang*, *Sariyeongeungi*, and *Myobeopyeonghwagyeong* were all published in the First Cast Gapinja type. Wangsilbon were copied and published to pray for the longevity and departed soul of royal family members, lead by Grand Prince Hyoryung, Grand Prince Anpyeong, Grand Prince Yeongeung and royal noble consort Kim. Third, many publications took place in the time of Sejo to pray for the departed soul of Crown Prince Uigyeong. Among them, *Wolinseokbo* uses each verse of *Wolincheongangjigok* as its text and uses the *Seokbosangjeol* as footnotes after expanding and editing the latter. It is a precious resource to observe the early transition process of the Hunminjeongeum. Sejo commanded the Korean translation and editing of the Eonhae edition of *Neungeomgyeong* to Shinmi, Hakyeol and Hakjo, which was then published in the Eulhae typeface. There is an Eulhae type print of *Wongakgyeong* in Chinese characters and a Hangul version in Eullyu type print. Two versions of *Myobeopyeonhwagyeong* were conveyed in the royal court, one sourced by Crown Prince Uigyeong's queen of the Han clan and one by Grand Prince Gwangpyeong's princess consort of the Shin clan. Fourth, the wangsilbon in the time of Yejong, Seongjong and Yeonsangun were all published by the royal family's Queen Dowager and Princess. In Sungjong's time, Jeonghui and Queen Dowager Insu published the wangsilbon to pray for the departed souls of the late king and queen and for the happiness and peace of Seongjong and his queen. Queen Jeonghui had the Eonhae type editions of *Geumganggyeongsamgahae* and *Yeongadaesajeungdoganammyeongjeonseonsagyesong* edited by Hakjo and published by the Royal Treasury; the two works had been translated into Korean but not edited during the time of Sejo. Queen Dowager Insu published *Buljeongsimdaranigyeong* and *Ohdaejineon*, which were translated to Korean by Hakjo. In the time of Yeonsangun, Queen Dowager Insu and King Seongjong's wife Queen Jeonghyeon took out Buddhist texts from Wongak Temple to pray for the repose of Seongjong's soul. At this time they used the privy purse to create and use wooden type prints and Hangul prints that were lacking; these wooden print types are called ingyeong-ja.

Key words: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Buddhist Scriptures, Buddhist Projects, Buddhist faith of the Royal famil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선 전기는 불교에서 유교로 정치·사상적 이념이 전환되는 시기로, 구시대의 가치이며 세력집단인 불교에 대한 억불정책(抑佛政策)은 새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개국 초 신진사대부들의 강력한 억불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위 원년(1392) 조계종의 무학자초(無學自超)를 왕사(王師)로,¹⁾ 태조 3년(1394) 천태종의 조구(祖丘)를 국사(國師)로 책봉²⁾하여 고려의 국사·왕사 제도를 유지하였고, 불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인 승록사(僧錄司)를 존치시켰다. 태종 시대(太宗, 재위 1400~1418)부터는 본격적인 억불정책이 실시되는데, 태종 6년(1406) 전국의 사찰을 정비하여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찰 노비를 혁거(革去)하였으며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각 종파(宗派)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11종 242사(寺)만을 남긴 데 이어,³⁾ 이듬 해 12월 최종 7개 종파로 축소하였다.⁴⁾ 이후 세종 6년(1424)에는 7개 종파를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통폐합하고 각각 18개씩 36개의 사찰만을 남기고, 승록사를 혁파(革罷)하였다.⁵⁾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시대 억불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으나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교 전통을 배제하였을 뿐 왕실에서는 구복(求福) 및 추천(追薦)을 위한 각종 불사가 행해졌다. 특히 세종은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 이후,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훈민정음으로 편찬하게 하였고 세종은 직접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는 찬불가(讚佛歌)를 지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시대에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어 불교전적의 간행 및 국역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세조는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편찬하였다. 세조 승하 후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시대 유신들은 유교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억불정책을 추진하였고, 성종 2년(1471) 간경도감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희대왕대비와 인수대비, 정현왕후 등 왕실 대비들에 의해 불교전적 간행과 국역은 연산군대까지 이어졌다.

조선 전기 왕실의 주도로 사성(寫成) 및 간행된 불교전적은 당대의 일류 서예가, 화가, 각수 등이

1)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 10월 9일. “… 封僧自超爲王師.”

2)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9월 8일. “… 以天台宗僧祖丘爲國師.”

3)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3월 27일. “議政府請定禪敎各宗, 合留寺社 … 曹溪宗, 摠持宗, 合留七十寺; 天台, 疏字, 法事宗, 合留四十三寺; 華嚴, 道門宗, 合留四十三寺; 慈恩宗, 留三十六寺; 中道, 神印宗, 合留三十寺; 南山, 始興宗, 各留十寺 ….”

4) 『太宗實錄』 권14, 태종 7년 12월 2일. “曹溪宗 … 天台宗 … 華嚴宗 … 慈恩宗 … 中神宗 … 摠南宗 … 始興宗 ….”

5)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禮曹啓: “釋氏之道, 禪敎兩宗而已, 厥後正傳傍傳, 各以所業, 分而爲七宗, 傳誤承訛, 源遠而末益分, 實有愧於其師之道. 且中外多建寺社, 分屬各宗, 其數猥多, 緇流四散, 曠廢莫居, 修葺不繼, 漸致頽毀. 乞以曹溪, 天台, 摠南三宗, 合爲禪宗; 華嚴, 慈恩, 中神, 始興四宗, 合爲敎宗, 擇中外堪寓僧徒之處, 量宜置三十六寺, 分隸兩宗, 優給田地, 酌定居僧之額, 群居作法, 俾之精修其道. 仍革僧錄司, 以京中興天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敎宗都會所; 揀取年行俱高者, 以爲兩宗行首掌務, 令察僧中之事 … 從之.”

동원되었고, 목판본 외에도 갑인자(甲寅字), 을해자(乙亥字), 정축자(丁丑字), 을유자(乙酉字) 등의 금속활자와 목활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교전적 판본으로, 특히 국역본은 훈민정음 초기 정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 불교전적 간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 불교전적을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 사찰판, 활자판으로 나누어 각 판본별 간인(刊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그 외에는 세종·세조 시대 불교전적의 국역 및 간행, 세조의 간경도감 설치 및 불교전적 간행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금속활자 및 목활자, 목판본 등 판본별 연구와 새롭게 발굴된 불교전적 판본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시기의 왕실 발원 불교전적이 불교 문헌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에 대하여 시기별 간행의 특징 및 서지적 성격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의 현황 파악 및 각 판본별 조사를 통하여 사성 및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종합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태조~연산군 시대(1392~1506)에 사성(寫成) 및 간행된 조선 전기 왕실 발원의 불교전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왕실 발원 불교전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선의 왕실, 왕실불교, 왕실 발원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왕실 발원본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교전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서지조사를 통해 1차 목록을 작성하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박물관 소장본과 개인소장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서지목록을 참고하였다. 1차 목록을 바탕으로 소장처를 방문하여 실물 또는 원문 및 영인본 자료를 열람하여 서지정보를 보완하였으며, 국보·보물 등 문화재 지정본과 귀중본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진, 해제 및 서지정보를 참고하여 총 56종에 대한 서지목록을 완성하였다.

셋째,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의 사성 및 간행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불교전적의 간행기록(刊記), 관련 인물의 문집 등의 역사기록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56종을 태종대 3종, 세종~문종대 12종, 세조대 17종, 예종대 1종, 성종대 19종, 연산군대 4종으로 나누었다. 시기별로 사성 및 간행의 주체에 따라 왕의 명찬본(命撰本)과 왕실 사성 및 간행본으로 나누어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 현황을 도표화하고 각 판본별로 간행의 경위와 성격,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왕실의 범위는 국왕, 왕비, 왕의 부모, 후궁, 왕자, 공주, 옹주 등 왕의 직계가족과 그들의 궁방에 한정한다. 둘째,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은 왕실 구성원이 발원하여 사성

및 간행한 불교전적으로, 현전하는 불교전적 및 사경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간행년도
가 불확실한 판본은 제외하였다.

1.3 선행연구의 개관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불교전적 간행에 관한 서지적 연구로 간행자별, 간행시기별, 판본별,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새로운 불교전적이 발굴되는 경우 각 판본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천혜봉(1991)은 조선 전기 불서 판본을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 사찰판, 활자판으로 나누고
시기별로 간행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판본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왕 및 왕실판은 당대의 일류
서예가, 화가, 각수 등을 동원하여 새긴 정각본(精刻本)으로 조선조 판본을 대표하며, 간경도감의
국역 불서는 한글의 명맥을 이어주었으며, 송설체계의 원필(圓筆)로 대중소자를 해정하게 새겨낸
정작(精作)이라 평하였다. 15세기 사찰판은 주로 고려본의 번각이며, 16세기 이후는 조선 초기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의 번각판과 우리나라 승려들의 찬술을 새긴 판본임을 밝혔다. 활자판은 세
종·세조조의 갑인자,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판과 성종조의 을해자, 연산군조의 목활자 인경자판으
로, 불서 판본에 국가 주조 활자판과 그 판본을 사찰에서 번각한 판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선 전기 불서판본만의 특징임을 밝혀냈다.

기윤혜(2012)는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불사활동을 사료의 기록과 불서의 발원문을 통해 고찰하
고, 인수대비가 발원하여 간행하거나 간행에 참여한 불서를 대승경전류 10종, 다라니·진언집류
3종, 의식집류 9종, 장소류 4종, 선서류 12종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여 의식집류와 선종 계열 불서를
중심으로 간행하였음을 밝혔다. 현존본 18종을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누어 판본별 형분석을 한
결과 인수대비가 기존 경판을 사용하여 인출한 경우 원간본은 간경도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번각본으로는 『묘법연화경』이 가장 많이 번각되어 유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영리(2013)는 조선시대 금속활자 및 목활자로 간행된 불교전적의 현황을 파악, 간행 배경과
시기별·주제별·형태별 분석을 통해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조 불서는 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
으며, 사용된 활자는 총 8종으로 을해자본이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며, 세종 29년(1447) 초주갑인자
로 찍어낸 『석보상절』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고, 광무 5년(1901)에 전사자(全史字)로 간행된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가 가장 늦은 시기의 것임을 밝혔다. 주제별로는 경전류와 선종 관련
서적이 대부분임을 밝혀냈다.

송일기(2015)는 현전하는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전적 24종을 조사·분석하여, 을유자체자본 6종,
인경자본 3종, 보광사자본 6종, 봉인사자본 2종, 고승문집 6종이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각 판본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조선 전기 판본은 9종으로, 을유자체자본 6종은 세조연간에 간행되었고,
인경자는 인수대비가 성종 승하 후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의 내탕금으로 만든 목활자로 현존 3종은

모두 연산군 2년(1496)에 간행되었다.

송일기·정왕근(2015)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전적 36종을 조사·분석하여, 갑인자본 9종, 을해자본 13종, 정축자본 2종, 을유자본 3종, 전사자본 9종이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각 판본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조선 전기에 27종이 간행되었으며, 세조대가 19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세조대에 주조된 초주갑인자본 9종은 국한문병용본 2종과 한문본 7종이 전해지며, 세조대에는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가 주조되는데, 을해자는 한글 대·중·소자도 함께 주조되었다. 정축자는 세조가 직접 글자본 쓴 활자로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발굴된 『금강경요가해』 권하 1책이 2014년 소개되었다. 을유자는 원각사 준공 후 『원각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조한 활자이다.

둘째, 불교전적 국역에 관한 연구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세조의 『월인석보』 편찬 및 간행, 국역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순애(2001)는 『월인석보』 편찬 과정과 체제를 살펴 월인부, 석보부, 협주세문의 세 가지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 구성은 권1 권수의 팔상도에 드러나며, 『석가보』, 『묘법연화경』, 『법원주림』, 『아미타경』 등 많은 경전을 삽입하여 각 권마다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월인석보』는 민중 중심의 불교 성격을 반영하여 백성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일환으로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국어국문학사에서 15세기 훈민정음의 표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석보부의 각 편이 월인의 각 부분을 해설 부연하고 있는 불교강창문학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월인석보』의 형태적 부분이 간경도감 국역 불서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김기중(2005)은 『석보상절』의 저경(底經)에 관한 연구에서 각 권차의 내용 및 저경을 삽화 단위로 세분하여 주요 저경의 내용과 성격을 살폈다. 『석보상절』은 여러 저경의 내용을 삽화 단위로 분리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경법회에서 승려들이 소리 내어 읽는 대본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한 경전의 내용으로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경전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2006)은 『월인천강지곡』 저경의 성격과 의미를 살피고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이 『석보상절』에 비해 추천(追薦)의식에서 중시되던 경전의 비중이 약화되고, 『대방편불보은경』, 『태자수대나경』 등 보은을 중시하는 불전의 비중이 높아져 윤리·교화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서사구조 상 성불의 방법 단락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성불의 방법인 보시와 효도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으며, 백성들에 대한 교화와 불교의 순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혔다.

김무봉(2012)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말까지 간행된 언해 문헌 전반을 대상으로 언해의 개념, 절차, 언해 사업의 현황을 밝히고, 언해불전 간행은 백성들의 불심에 기대어 국어를 정착 및 보급시키고자 한 의도로 파악하였다. 또한 간경도감의 조직과 기능을 밝히고,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을 9종을 대상으로 간경도감 국역 불서의 언해 체제의 공통적 특징을 밝혔다.

이화숙(2011)은 세종 25년(1443) 훈민정음 창제 이후 고종 31년(1894)까지 간인된 국역불서를

국역 체제에 따라 언해본, 음역본, 언토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시기·지역·주제별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존본의 2/3 이상이 언해본으로 대부분이 왕실에 의해 15세기 한양에서 간행되었으며, 음역본은 전체의 1/4로 조선 후기 서민들의 염불 및 독송을 위한 불서가 많이 간행되었음을 밝혔다.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전라도 순천과 경상도 풍기가 중심이 되었고, 18세기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간행이 활발했음을 밝혔다. 주제별로는 경전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의류에 속하는 선종(禪宗) 관련 불서였다.

2.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의 선정과 현황

조선 전기는 건국 초기부터 왕과 왕비 그리고 대군, 공주 등 왕실 구성원들이 불교전적을 사성 또는 간인(刊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佛像)을 조성하거나 불화(佛畵)를 제작하는 등 부처에게 공양하는 불사를 직접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왕실, 왕실불교, 왕실불사, 왕실판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서지학계, 역사학계, 불교학계, 국어학계, 미술사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왕실의 범위는 대체로 왕과 비빈(妃嬪)들을 포함하여 그 직계자손으로, 대군과 군, 공주 및 옹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신행 관련 연구에서는 왕실의 범위를 왕을 기준으로 왕과 비빈들과 대군과 군을 포함하여 그 직계자손으로 한정하였고,⁶⁾ 조선시대 왕실불사의 재원 연구에서 왕실구성원을 왕의 왕자군, 공주 및 옹주, 종친으로 한정하였다.⁷⁾ 15세기 왕실 발원 불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왕실을 임금과 종친인 대군과 군, 비빈들로 한정하였다.⁸⁾ 왕실불교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교신앙이 깊은 비빈, 대군, 종친 등 왕실의 인물을 왕실 불교세력이라고 일컫고, 불심이 깊은 왕을 숭불주(崇佛主)라고 칭하기도 하였다.⁹⁾ 불교미술사학 분야의 불교 변상판화 연구 중에는 왕실 발원본을 왕실에서 발원한 간행본만을 지칭하던 범위에서 나아가 왕실과 혈연 또는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왕실의 일원들이 직접 발원하거나 시주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였다.¹⁰⁾ 서지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왕 및 대군, 왕비, 빈들이 사적으로 속죄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하여 또는 살아 있는 사람의 수복(壽福)을 기원하거나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전적을 간행한 것을 ‘국왕 및 왕실판’ 또는 ‘국왕 및 왕실판본’이라고 하였다.¹¹⁾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왕실의 범위는 왕비, 왕의 부모, 후궁, 왕자, 공주,

6) 고종호,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신행과 사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5.

7) 김정희, “조선시대 왕실불사(王室佛事)의 재원(財源),” 『강좌미술사』 제45권(2015), 230.

8) 오은주, “朝鮮 15世紀 王室發願 佛像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2.

9) 이봉준, “조선 전기 숭불주와 홍불사업,” 『불교학보』 제38집(2001), 45.

10) 김자현, “朝鮮前期 佛教變相版畵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8.

11)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5), 270.

옹주 등 왕의 직계가족과 그들의 궁방¹²⁾으로 하고, 왕실 발원본은 왕실 구성원이 발원의 주체가 되어 사성 및 간행한 불교전적을 선정하였다. 서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 현황을 도표화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발원 주체
1	楞嚴經	태종 1년(1401)	木板本	태조
2	妙法蓮華經	태종 1년(1401)	木板本	태조
3	紺紙銀泥妙法蓮華經	[태종 8년(1408) 이전]	寫經	익안대군
4	父母恩重經	세종 14년(1432)	木板本	명빈 김씨
5	釋譜詳節	세종 29년(1447)	初鑄甲寅字本	세종
6	月印千江之曲	세종 29년(1447)	初鑄甲寅字本	세종
7	地藏菩薩本願經	세종 29~30년 (1447~1448))	木板本	영응대군
8	妙法蓮華經	세종 30년(1448)	木板本	안평대군
9	舍利靈應記	세종 31년(1449)	初鑄甲寅字本	세종
10	妙法蓮華經	세종 32년(1450)	初鑄甲寅字本	세종
11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세종 32년(1450)	初鑄甲寅字本	안평대군
12	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密經	세종 32년(1450)	寫經	신빈 김씨
13	白紙金泥父母恩重經	[세종 23년(1441) ~ 성종 17년(1486)]	寫經	효령대군
14	白紙金泥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세종 23년(1441) ~ 성종 17년(1486)]	寫經	효령대군
15	妙法蓮華經	문종 1년(1451)	木板本	세종
16	妙法蓮華經	세조 1년(1455)	乙亥字本	의경세자 비 한씨
17	楞嚴經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18	大乘起信論疏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세조
19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0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1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木板本	세조
22	永嘉眞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세조
23	永嘉眞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4	金剛經五家解	세조 3년(1457)	丁丑字本	세조
25	妙法蓮華經	세조 3년(1457) 중간본	初鑄甲寅字本	세조
26	月印釋譜	세조 5년(1459)	木板本	세조
27	妙法蓮華經	세조 5년(1459)	木板本	광평대군 부인 신씨
28	天台四教儀集解	세조 6년(1460)	乙亥字本	세조
29	天台四教儀集解	세조 6년(1460)	木板本	세조
30	楞嚴經	세조 7년(1461)	乙亥字本	세조

12)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의미한다.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발원 주체
31	圓覺經	세조 3~7년 (1457~1461)	乙亥字本	세조
32	圓覺經	세조 11년(1465)	乙酉字本	세조
33	地藏菩薩本願經	예종 2년(1469)	木板本	정의공주
34	妙法蓮華經	성종 원년(1470)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3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성종 원년(1470)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36	圓覺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7	蒙山和尚法語略錄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8	妙法蓮華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9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0	般若波羅密多心經疏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1	佛祖歷代通載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2	禪宗永嘉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3	六經合部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4	眞實珠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5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6	禮念彌陀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7	地藏菩薩本願經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8	金剛經三家解	성종 13년(1482)	丁丑字(大字), 乙亥字(中·小字)	정희대왕대비
49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성종 13년(1482)	乙亥字本	정희대왕대비
50	六經合部	성종 14년(1483)	木板本	안순왕후
51	佛頂心陀羅尼經	성종 16년(1485)	木板本	안순왕후
52	五大眞言	성종 16년(1485)	木板本	안순왕후
53	禪宗永嘉集	연산군 원년(1495)	木板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4	六祖大師法寶壇經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5	眞言勸供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6	天地冥陽水陸雜文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표 1>에 의하면, 태종대부터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의 왕실 발원본 총 56종이 현전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간행 현황을 살펴보면, 태조·정종대에는 간행본이 없으며, 태종대에는 『능엄경』, 『묘법연화경』의 경전류 간행본 2종과 사경 1종이 전해져 전체 56종 중 5.35%이고, 세종대에는 경전류 간행본 4종, 한국찬술류 간행본 4종, 사경 3종의 총 11종이 전해져 19.64%, 문종대에는 『묘법연화경』 1종의 1.78%가 전해지며, 세조대에는 경전류 9종, 한국찬술류 1종, 장소류 3종, 선종(禪宗)류 2종, 천태종류 2종의 총 17종이 전해져 30.35%에 이른다. 예종대에는 경전류 1종으로 1.78%, 성종대는 가장 많은 불교전적이 전해지는데 경전류가 8종, 장소류 3종, 선종류 4종, 의식의례집 4종의 총 19종으로 33.92%를 차지한다. 연산군대는 선종류 2종, 의식의례집 2종의 총 4종으로 7.14%이다.

둘째, 56종을 발원의 주체에 따라 왕의 명찬본과 왕실 사성 및 간행본으로 나누어보면, 왕의 명찬

본은 22종으로 39.28%, 왕실 사성 및 간행본은 60.71%이다.

셋째, 56종 중 한글 편찬본은 3종으로 5.35%, 국역본은 11종으로 19.64%로 국역본 중 언해본은 10종, 언토본은 1종이다.

3. 태종, 세종, 문종 시대 왕실 발원본 분석

3.1 태종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3.1.1 태조 명찬(命撰)본

태종시대 간행본으로는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의 경전류 2종이 전해진다. 태종 1년(1401) 태상 왕 태조는 신충(信聰)에게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을 대자(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현전하는 『묘법연화경』에는 간행기록이 없으며 『능엄경』의 권근의 발문(跋文)을 통해 두 경전이 함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발문에 의하면 각수(刻手)는 명호(明昊), 선관(善觀), 중오(中悟), 혜공(惠空), 지부(知孚), 김오(金悟), 노신(盧信), 임득중(任得中), 김윤(金潤), 최구(崔口), 최유(崔宥)이고, 간역(刊役)의 감독관은 윤백안(尹伯顔)이 맡았다.¹⁴⁾

현재 『능엄경』은 3종이 전해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10권 5책의 완질이 전해진다(보물 제759호). 통도사에는 권9, 10(보물 제1195호)이 남아있으며, 기림사(祇林寺) 소장본 권2, 3, 4는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복장(腹藏)에서 나온 절첩본(折帖本)으로 낙장(落張) 없이 온전한 상태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권1 서문과 권수제면(卷首題面)을 포함한 1~4장이 결락(缺落)되었고, 권10 발문의 하단이 떨어져나가 일부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통도사본 권10에서 완전한 발문을 확인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은 모두 절첩본 형태로, 현재 목아불교박물관에 권1(보물 제1145호), 통도사에 권2(보물 제1194호), 호암미술관에 권3(보물 제968호)이 전해진다. 현전본 중 간기가 있는 권7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능엄경』 발문 기록과 글자체가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로 본다. 태종 1년(1401)에 간행된 목아박물관 소장 권1은 감색 표지에 금니로 표제(標題)가 적혀있으며, 권수의 변상도(變相圖) 기본 도상은 고려 충렬왕 12년(1286) 간행본(보물 제693호)과 일치하나 장식적인 면이 부각되었다.¹⁵⁾ 리움박물관 소장의 권3은 불상 안에서 나온 것으로 앞뒤의 표지가 떨어져있으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13) 卷10 權近의 跋文. “太上王殿下命書 御覽 仍命鋟梓 以廣其傳者也 蓋欲追福 … 以安幽明命臣近跋.”

14) “建文3年(1401)5月日 前楊井寺住持勸修本智佑世大師 信聰書 刻手大德 明昊, 善觀, 中悟, 惠空, 知孚, 金悟, 盧信, 任得中, 金潤, 崔口, 崔宥.”

15)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教美術』 제12호(1994).

3.1.2 왕실 사성(寫成) 사경

태종대에 왕실에 의해 사성(寫成)된 사경으로는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益安大君)이 발원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절첩: 35.1×11.9cm, 21.9×46.8cm) 권5 1종이 현재 일본 교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⁶⁾ 사성기(寫成記)¹⁷⁾에 의하면 태상왕, 상왕(정종)과 상왕비 정안왕후(定安王后), 주상과 왕비, 원자 등의 수복무강(壽福無疆),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혜옹주(貞惠翁主, 태종의 서녀) 등과 함께 발원¹⁸⁾하여 제작한 것으로, 태상왕의 수복을 빌고 있어 익안대군으로 봉해진 태종 즉위년(1400)부터 그의 사망 해인 태종 4년(1404)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변상도는 석가의 설법 장면인 영산회상도와 경문의 내용을 설명한 설화도가 그려진 『묘법연화경』 사경 변상도의 일반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본문은 은니로 필사하였으나 변상도는 금니로 그려져 있다.

3.2 세종, 문종 시대 사성 및 간행본

3.2.1 세종 명찬본(命撰本)

세종, 문종대 간행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응기』, 『묘법연화경』의 4종으로 모두 세종의 명에 의해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여 간행하였다. 『묘법연화경』 1종이 경전류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한국찬술류이다. 이들 불교서적 4종의 간행경위 및 현존본의 서지적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보상절』은 세종 29년(1447) 7월부터 세종 31년(1449) 2월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9 뒷부분 표지 안쪽의 묵서지기(墨書識記)에 근거한다.¹⁹⁾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1의 「석보상절서(釋譜詳節序)」와 「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에 의하면, 소헌왕후의 추천(追薦)을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편찬하여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실록에는 『석보상절』 편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세종 28년(1446) 김수온(金守溫, 1410~1481)에게 『석가보』를 증보 수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²⁰⁾ 중국 남북

16) 장충식, “朝鮮時代 寫經考,” 『한국미술사학회』 제204호(1994),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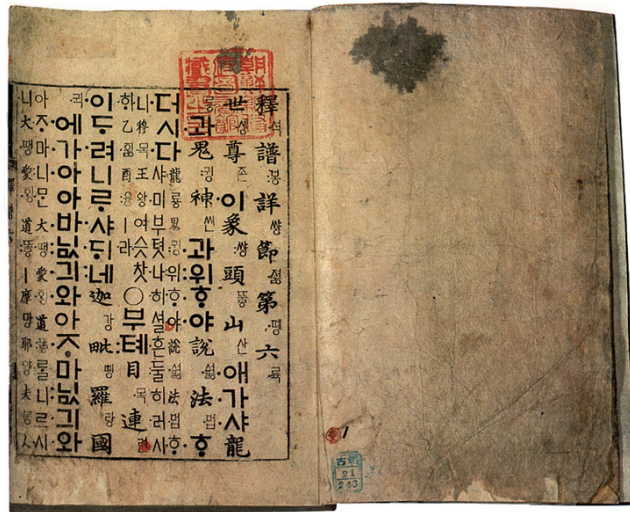
17) “定社臣益安大君芳毅 竊荷祖宗毓之蔭早享鼎食 恩庇罔極思所以憑茲 學皇慈授畧報其萬一端祝 太上王殿下壽等躋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 上王殿下永興 大妃長享五福 主上殿下負屨萬萬春秋 靖妃殿下椒蘭衍慶 金枝永茂 元子千秋 宗室康寧 臣忠子孝 國治民樂 次願己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 兼枝一家 日子日女 現增壽福當生樂鄉 敬捨淨賄 銷銀染楮 謄寫蓮經 用以流通 讀佛慧命 轉利無窮 ….”

18) 施主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否君 芳毅同室 貞惠翁主 崔氏

19) 권9말 墨書識記. “正統拾四年(1449)貳月初四日 嘉善大夫黃海道觀察黜陟使兼兵馬都節制 使兼判海州牧使申.”

20) 『世宗實錄』 권114, 세종 28년(1446) 12월 2일 을미.

조시대의 승려 승우(僧祐)가 편찬한 『석가보』나 당나라 도선(道宣)의 『석가씨보(釋迦氏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석보상절』의 저본(底本)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²¹⁾



<그림 1> 『석보상절』 권6의 권수제면(보물 제523-2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석보상절』은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합하고,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아미타경』, 『약사경』 등을 참조하여 석가의 일대기를 편찬한 책으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산문이자 최초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반영한 문헌으로 15세기 국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총 24권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권6, 9, 13, 19, 20, 21, 23, 24의 8권 8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6, 9, 13, 19(보물 523호)는 책머리에 ‘교정(校正)’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고, 본문에는 활자가 잘못 찍힌 것이나 초고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난외에 정오(正誤) 표시를 한 교정본이다. 『석보상절』의 교정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잘못 표기된 오류를 수정하고 복수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 용법의 차이에 따라 표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교정한 내용은 세조대에 편찬되는 『월인석보』에 반영되었다.²²⁾ 권20, 21은 개인소장본으로, 이 두 책은 납탑본(納塔本)으로 두 권이 한 책으로 묶여 있었다. 1990년 소개 당시 권20은 전체 53장으로 권수의 첫 장이 떨어져 나가고 2장~15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권21은 전체 65장

21)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3).

22) 유근선, “『석보상절』 권 6, 9, 13, 19의 한자음 교정,” 『韓民族語文學』 제67집(2014).

유근선(2014)은 『석보상절』 교정본(권6, 9, 13, 19)과 『월인석보』의 한자음 표기를 비교하여 교정본의 교정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하여 ‘上’, ‘行’을 제외한 모든 표기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上’과 ‘行’은 『석보상절』 내에서도 교정 여부가 달라 교정자가 한자의 용법을 해석한 방식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으로 추정하며 64, 65장이 낙장이고 60~63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²³⁾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권23, 24는(보물 523-2호) 원래 2권 1책으로 장정되어 있다가 후에 새롭게 2권 2책으로 개장한 것이다. 북간본으로는 권3(개인소장)과 권11(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523-3호)의 2권 2책이 전해진다.

둘째, 세종이 지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과 마찬가지로 『석보상절서』와 『어제 월인석보서』에 간행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하여 올리자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실록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간행시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석보상절서』를 작성한 세종 29년(1447) 7월 25일부터 세종 31년(1449)까지로 추정한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모두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여 활자와 판식이 같다. 한자(漢字) 활자는 갑인자 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를 새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는 훈민정음 창제 후 처음 주조한 한글 금속활자인 점에서 가치가 크다.²⁴⁾ 이 한글 활자는 『사리영웅기』의 인명 표기에도 쓰였으나 그 뒤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²⁵⁾ 상, 중, 하의 3권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권상의 1책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 관리되고 있다.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영본(零本)이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세종이 직접 짓고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어, 초기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2017년 1월 국보 제320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낙장으로는 권상과 권중의 7장 14면이 전해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셋째, 세종 31년(1449) 간행 『사리영웅기』는 세종 30년(1448) 내불당 재건 후 열린 경찬회²⁶⁾에서 부처님 사리를 보고 세종이 김수온에게 명하여 편찬하도록 한 것이다. 『사리영웅기』는 내불당 및 불상 조성 경위, 『삼불예참문(三佛禮懺文)』, 신성(新聲)의 제작, 불당 낙성식의 제반 사항, 사리 분신의 이적, 김수온의 논평 및 한시, 법회에 참석한 261명의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이 지은 신곡 즉, ‘친제신성(親制新聲)’은 『양홍자지곡(仰鴻慈之曲)』, 『발대원지곡(發大願之曲)』, 『용선도지곡(隆善道之曲)』, 『묘인연지곡(妙因緣之曲)』, 『포법운지곡(布法雲之曲)』, 『연감로지곡(演甘露之曲)』, 『의정혜지곡(依定慧之曲)』의 7곡이다. 수록된 악장은 총 9편으로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贊法身)』, 『찬보신(贊報身)』, 『찬화신(贊化身)』, 『찬약사(贊藥師)』, 『찬미타(贊彌陀)』, 『찬삼승(贊三乘)』, 『찬팔부(贊八部)』, 『희명자(希冥資)』이고, 각 편은 5언 6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현재 초주갑인자본은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발문에 김수온이 기록했다는 내용²⁷⁾이 있으며, 간기는 따로 없으나 권수에 간행년²⁸⁾이 보인다.

23) 천혜봉, “조선 전기 불서 판본,” 『서지학보』 제5집(1991).

24) 옥영정,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사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승격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7).

25) 강순애,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26) 『世宗實錄』 권122, 세종 30년(1448) 12월 5일 정사. “丁巳/佛堂成, 設慶讚會, 凡五日而罷 ….”

27) 跋文. “承義郎守兵曹正郎臣金守溫(朝鮮)謹記.”

넷째, 세종 32년(1450)에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3과 권5~7이 전해지며, 계명대학교 도서관과 대일사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은 동궁이던 문종의 병이 심해지자 안평대군, 금성대군(錦城大君, 세종의 여섯째 아들), 이사철(李思哲), 정효강(鄭孝康), 이영서(李永瑞), 이명민(李命敏) 등에게 왜저지(倭楮紙)를 사용하여 『화엄경』을 목판으로, 『묘법연화경』을 주자(鑄字)로 각각 33부 인쇄하도록 하였다.²⁹⁾

3.2.2 왕실 사성 및 간행본

세종대 왕실 발원 사경은 세종 32년(1450) 사경과 세종 23년(1441)에서 성종 17년(1486) 사이에 사성된 사경 2종의 총 3종이 전해진다.

첫째, 세종 32년(1450)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愼嬪 金氏)가 제작한 『백지금니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密經)』(절첩, 31.2×12.7cm)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⁰⁾ 발문에 의하면 신빈 김씨가 죽은 막내아들 담양군의 극락왕생을 빌며 발원하였으며, 발문 다음의 묵서지(31)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필사하였다.

둘째, 백지에 묵서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을 함께 사경한 절첩본이 천안 광덕사(廣德寺)에 전해지는데(보물 1247호 사경 3종 중 1건) 권말 시주질(施主秩)에 의하면, 효령대군이 부인 예성부부인정씨(藥城府夫人鄭氏)와 아들과 함께 발원하여 광덕사에 시주한 것이다. 필사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발문에 보이는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 보성군(寶城君)이 세종 23년(1441)에 군(君)으로 책봉되었고 효령대군이 성종 17년(1486)에 입적하여, 1441년에서 1486년 사이로 추정한다.

세종~문종대 왕실의 주도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부모은중경』과 『묘법연화경』 2종과 『합허당득통화상현정론』, 『지장보살본원경』의 총 5종이 전해진다.

첫째, 세종 14년(1432)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明嬪 金氏, ?~1479)에 의해 『부모은중경』이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권 1첩의 절첩본은(보물 제1125호) 『부모은중태골경(父母恩重胎骨經)』이 합철되어 있다. 『부모은중태골경』은 『부모은중경』의 이본(異本) 중 하나이다. 권말에 정암(定菴)의 발문이 있고 발문 끝에 ‘대공덕주명빈김씨(大功德主 明嬪金氏)’라는 공덕자 표시가 있고, 도인 의호(義浩)가 각수로 참여하였다. 이 판본은 태종 7년(1407) 간행본³²⁾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

28) 권수 기록. “上之三十有一年(1449)秋七月十九日癸卯.”

29) 권7말 발문. “今年正月 又得斯病 比前由劇 … 乃於閏正月十九日 命安平大君臣瑔 錦城大君臣瑜 都承旨臣李思哲 司僕少尹臣鄭孝康 校書校理臣李永瑞 戶曹佐郎臣李命敏等 作倭楮紙 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法華則鑄字 皆吮油煙 貴其香潔而光華也 … 景泰元年(1450) 金守溫 跋文.”

30) 장충식, “朝鮮時代 寫經者,” 『한국미술사학회』 제204호(1994), 78-79.

31) “安平大君名瑔字清之 世宗第三子也號匪懈堂書法爲東方第一且 能詩章結文學之士優游酬唱於太 平之世以此最見忌怵卒以禍死而 亦不知死在何時坐以何言也蓋以 浮華取云 …”

로, 태종 16년(1416)에 간행된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보물 1092호, 김종규 소장)의 권말 첩봉(疊峯)이 쓴 발문에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간행 이전인 태종 7년(1407)에 『묘법연화경』과 『부모은중경』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 세종 30년(1448)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권4~7의 4권 1책을 아단문고(보물 제766-1호) 소장본과 개인소장본(보물 제766-2호)이 있는데, 계환의 주해본을 태종 5년(1405)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概) 형제가 필서하여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권7 말에 안평대군이 직접 쓴 발문과 양윤손(梁尹孫)의 발문이 있는데, 발문³³⁾에 의하면 안평대군과 효령대군이 발원하여 간행하였다. 안평대군의 서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권4의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신장상(神將像)과 삼존불(三尊佛) 좌상(坐像)을 중심으로 설법도(說法圖)를 새긴 『묘법연화경』의 기본 도상이나, 이전의 다른 변상과 달리 존상의 배치 및 모습 등의 차이가 있다.³⁴⁾

셋째, 문종 1년(1451)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희인(希忍)이 쓴 권말 발문에 의하면 명빈 김씨가 귀인(貴人) 최씨와 함께 임금과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고 태종과 원경왕후,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가 천도와 아버지 안정공(安靖公) 김구덕(金久德)과 어머니 신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하였다.³⁵⁾ 현재 권5~7의 3권 1책이 호림박물관(보물 제1107호)에 소장되어 있다. 계환의 주해(註解) 없이 원문만을 새겨 간행한 판본으로, 계선과 어미가 없이 1장에 30행 14자의 권자본(卷子本)으로 장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종 32년(1450)에 간행된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은 승려 함허당(涵虛堂) 기화(己和, 1376~1433)가 배불론자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교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쓴 책으로, 발문³⁶⁾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수암(秀菴)에게 구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였다. 현재 개인소장의 1종이 전해진다.

다섯째, 세종의 막내아들 영응대군(永膺大君)에 의해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은 현재 1종(보물 제933호)이 전해진다. 간행기록이 없으나 권말 기록에 의하면 영응대군이 태종 비 원경왕후와 소헌

32) 송일기(2000)에 의해 개인소장본이 발굴 조사되었다. 간행기록은 없으나, 태종 16년(1416)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의 발문에 의해 간행년을 태종 7년(1407)으로 추정하였다. 실물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33) “法華經跋 孝寧大君謂瑬曰 予勸諸信善綉梓蓮經 今已就訖 幸爲具顯末于後 瑬惟 … 然則妙蓮一經 豈非諸佛之宗源 千經之輶轄也歟 是經爲世所重 或染毫爲寫 惑鏤板印而其刊其刊板所在又非一處率皆歲久 不稱奉持 大君爰自幼年 作爲功德之主 數十年間 浩福植善 不以數計 若緇若素 莫不欽仰 今又率諸檀越 伐材募工 彫造此經 … 正統十三年戊辰(1448)夏四月日 安平大君瑬 拜手書.”

34)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教美術』 제12호(1994).

35) “明嬪金氏 貴人崔氏 梁知大事 因緣萃於茲典 欲使後之學者 皆得悟入佛佛知見 板而傳傳 其法施施 廣義利利 深固莫得而思議矣 … 志在賴此勝因奉祝 聖躬萬歲 儲齡千秋 太宗大王靈駕 元敬王后 靈駕 世宗大王靈駕 昭憲王后靈駕 … 亦先考安靖公金九德仙駕 先妣莊敬宅主辛氏仙駕 及與歷代親緣超生樂 … 予跋山人輒揆下才拱手固辭 … 景泰2年(1451)柒月 季旬順善堂納 希忍 沐手謹跋.”

36) “瑬於是謹奉師志而模印刊行云時景泰庚午(1450)閏月日初吉琅琅居士書.”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권말 기록에 영웅대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호를 받은 세종 29년(1447)에서 세종 승하년인 세종 32년(1450) 사이 간행본임을 알 수 있다. 5행 17자의 절첩으로 펼쳐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정은 선장본이다.

4. 세조 시대 왕실 발원본 분석

4.1 세조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4.1.1 세조 명찬(命撰)본

세조의 명에 의해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17종으로, 『묘법연화경』 3종, 『능엄경』 2종, 『원각경』 2종, 『번역명의집』 2종의 경전류 총 9종, 『월인석보』의 한국찬술류 1종,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금강경오가해』의 장소류 총 3종, 『영가진각대사증도가』, 『천태사교의집해』 2종의 선종, 천태종 관계류 총 4종이 간행되었다. 이들 간행본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조 원년(1455) 을해자본 『묘법연화경』이 전해지는데,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만들어진 대·중·소자의 동활자이다. 현재 전해지는 『묘법연화경』 초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권5, 월정사정보박물관에 권6, 7이 소장되어 있다.³⁷⁾ 고려대 만송문고 권5는 고정지에 인출하였고 인출상태와 보관상태가 좋아 초간본으로 추정한다. 월정사정보박물관 소장 권6 권수제 위에 ‘교정(校正)’ 도장이 찍혀 있다.

둘째, 세조 3년(1459) 의경세자(懿敬世子)가 죽자 세조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서적을 간행하였다. 현재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묘법연화경』의 6종이 전해진다.

『금강경오가해』는 본문은 정축자로 주해는 갑인자 중·소자를 이용하여 100부를 간행하였다.³⁸⁾ 정축자는 정문(正文)을 세조가 직접 써서 세조 3년(1459)에 주조한 동활자이다. 정축자는 『금강경오가해』 외에 성종 13년(1482)에 간행한 『금강경삼가해』 국역본 2종에만 사용되었다. 현재 권상은 성암고서박물관에, 권하는 수국사에 소장되어 있다. 수국사본은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전적 중 하나로 권말에 세조의 어제발(御製跋)과 김수온 등의 발문이 있고, 권수면에 ‘법시지보(法施之寶)’의 내사인(內賜印)이 찍혀 있다.³⁹⁾

37) 송일기(2015)에 의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卷2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나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고,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8) 御製跋. “... 又請慧覺尊者信眉 演慶住持弘濬等 校定涵虛堂金剛經說義 入之五家解爲一書 ...命印成各百件...”

39) 송일기,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135-136.

『대승기신론소』는 당나라의 마명(馬鳴)이 지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해 주석한 책으로, 원효의 주석서인 『기신론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法藏)의 『소』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이다. 조선 세조 3년(1457) 초주갑인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현재 개인소장본 1종(보물 제1713호)이 유일하게 전해지는데,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下之一), 권하지이(卷下之二) 등 3권 1책이다. 권상지일(卷上之一)은 결본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법장이 해설을 단 주석서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세조 3년(1457) 간행 을해자본은 세조 3년(1457) 11월 20일에 작성된 어제발문에 의하면 세조가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표제는 「심경략소(心經畧疏)」이고 판심제는 「심경(心經)」이다. 앞표지 안쪽에 ‘甲辰八月甘露堂春峰和尚會上重修’라고 적혀 있어 갑진년 8월에 감로당 춘봉화상이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번역명의집』은 목판본과 을해자본이 각 1종씩 전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번역명의집』 권1~3(서울유형문화재 제180호)은 대·소 을해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으로 ‘법시지보’의 내사인이 찍혀 있다.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 수 없으나 인쇄나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판식이나 장정 등을 살펴볼 때 세조 3년(1457)본으로 추정한다. 목판본은 권1~14(보물 제1369호)가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표제는 「번역집(翻譯集)」이고 ‘고운사인(孤雲寺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당나라 진각대사(眞覺大師, 647~713)가 선종 제6조 혜능조사(慧能祖師, 638~713)를 만나 깨달은 진리를 칠언시(七言詩)로 노래한 것과 이에 대한 여러 주석을 수록한 책이다. 세조는 3년(1457) 『영가진각대사증도가』를 초주갑인자로 먼저 인출하고 같은 해 을해자로도 인출하였는데, 권말에는 어제발과 강맹경(姜孟卿), 신숙주(申叔舟), 조석문(曹錫文), 김수은, 임원준(任元濬) 등⁴¹⁾이 쓴 8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수제면에 ‘법시지보’의 내사인이 찍혀 있다. 현재 초주갑인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표제는 「증도가주해(證道歌註解)」이다. 을해자본(보물 제1776호)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조 3년(1457)의 『묘법연화경』은 초주갑인자를 기본으로 하고 목활자를 일부 보충해서 만든 중간본이다. 이 판본 역시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권2가 전해진다. 간행기록이 없으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발문을 통해 1457년에 인출한 『묘법연화경』 100권 중 현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셋째, 세조 5년(1459)의 목판본 『월인석보』는 세조가 세종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節)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 및 협주세문(夾注細文)을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40) 옥영정,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흥두선 기증 古書의 현황과 그 가치,” 『서지학보』 제38집(2011), 177~178.

41) 御製跋. “... 是年(1457)秋九月下澣 ... 姜希孟拜手稽首謹跋, 天順元年(1457)九月下澣 ... 申叔舟拜手稽首泣血謹跋, 曹錫文謹跋, 是年(1457)九月上澣 ... 金守溫奉教謹跋, 任元濬跋.”

42) 강희맹의 발문. “... 於是 上尊世宗之遺命 次爲東宮之冥福 命朝臣之善寫者 金書法華經一件 墨書地藏經梵網經行願品 印成大藏經華嚴經各一件 法華經楞嚴經翻譯名義各一百件 地藏經懺法十四件 ...”

것이다. 신미, 수미, 설준, 홍준, 효운, 지해, 해초, 사지, 학열, 학조 등의 승려들과 김수온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지은 것을 그대로 수록하고 『석보상절』은 증보·수정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보다 한 줄 아래로 내려 중자(中字)로 표현하였다. 협주세문은 단형(短形), 장단형(長短形), 장형(長形) 형태의 『석보상절』의 주석으로 소자(小字)로 표현되어 있다. 권1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 있으며, 세종조의 원본과 문장과 표기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민정음 초기 한글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2> 『월인석보』 권1(보물 제745-1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권1 권수의 팔상도(八相圖)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불화로, 각 장면을 1판씩 8개 판에 묘사하고 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상(兜率來儀相),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상(毘藍降生相),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四門遊觀相), 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상(踰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는 상(鹿苑轉法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상(雙林涅槃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하는 권1에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부분이 잘려나가 있다. 『월인석보』는 『석가보』, 『아미타경』,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법원주림(法苑珠林)』 등 여러 경전을 저경으로 하고 있는데, 권11~권19까지는 『묘법연화경』이 실려 있다.⁴³⁾

현재 12종이 현전하는데, 전체 25권 중 현전하는 초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2종), 17, 18, 19, 20, 23, 25의 17권이다. 권1, 2, 4, 7, 8, 17, 21, 22, 23은 그 중간본 및 번각본

43) 강순애,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9권이 전해진다. 서강대학교 소장의 권1, 2(보물 745-1호)는 첫 장 우측 윗부분에 ‘교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교정 초쇄 원간본이다. 권7, 8(보물 745-2호)은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으로 권7은 첫 장에서 5장까지 결락되었고, 그 밖의 부분에도 일부 낙장이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권9, 10(보물 745-3호)은 권9는 첫 장에서 3장까지, 권10은 권말 부분에 결락이 있다. 권11, 12(보물 935호)는 호암미술관에서, 권13, 14(보물 745-4호)는 연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권13은 첫 장이 결락이고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권14는 82장 이하가 결락되었다. 권15는 구암사 소장본(보물 745-10호)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의 권15는 29장 반엽의 결락본이고 구암사본은 앞뒤 표지가 없지만 본문은 낙장이 없이 완전하다. 권17, 18(보물 745-5호)은 수타사 정보박물관에서, 권19는 가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권20(보물 745-11호)은 개인소장본이며, 권23(보물 745-8호)은 삼성출판박물관에 있는데 앞부분 16장이 결락되었고, 뒷부분도 106장으로 끝나 결락된 부분이 있다. 장흥 보림사(寶林寺) 소장의 권25(보물 745-9호)는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으로 앞뒤 일부가 결락되었다. 이 판본이 발굴됨에 따라 『월인석보』가 전체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천태사교의집해』는 고려의 제관(諦觀, ? ~970)이 저술한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에 대한 송(宋)의 종의(從義, 1042~1091)의 주해서이다. ‘余治平四年(1067)冬 … 再定之文不須復留未治之本也’라는 종의의 서문이 있으며, 발문에 ‘延祐元年甲寅(1314)孟秋初吉牧庵老人題’라는 간기가 보이며, 이를 원전으로 세조 6년(1460)경에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권1~3의 3권 1책이 전해지며, 화봉문고에 권하, 국립중앙도서관에 권상, 하 2권 2책,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권중, 하의 1책(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7호)이 전해진다.

다섯째, 세조 7년(1461)의 을해자본 『능엄경』이 도서관에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언해본으로 당의 반랍밀제(般剌蜜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이 풀이한 것을 국역한 것이다. 권10의 어제발, 신미와 김수온 등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 31년(1449)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다가, 세조 7년(1461) 5월 회암사의 불사에서 석가의 분신사리 출현이 있었을 때 효령대군이 국역의 완성을 청하여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에 시작한 국역은 8월 22일에 완료되어 10월말 경 을해자로 400부를 인출하였다. 세조 8년(1462)에는 간경도감에서 을해자본을 수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세조 7년(1461) 을해자본 『능엄경』 언해본은 현재 11종이 전해지는데, 완질은 없고 권1~10이 흩어져 소장되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에서 권1(보물 제760호)을 소장하고 있고, 규장각 소장의 권2, 5(보물 제761호)는 권2 표지 아래에는 ‘浴庵堂主人’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으며, 권5의 표지 오른쪽에도 ‘神興寺’라는 묵서지기가 보인다. 동국대 도서관에서 권3(보물 제948-1호), 권7, 8(보물 제762호)을 소장하고 있다. 권3은 개인 소장본(보물 제948-2호)으로도 전해진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는 권7, 8과 권9, 10(보물 제763호)의 4권 2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권10 말에 국한문 발문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권4, 권7, 8(보물 제973호)의 3권 2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구인사에 권6(보물 제1049호)이 남아있으며, 금릉사

소장의 권1(보물 제1520호,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서울대 도서관 권2, 동국대학교 도서관 권3, 연세대 도서관 권7, 일본 텐리대학교(天理大學校)에서 권6을 소장하고 있다.

여섯째, 『원각경』은 2종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을해자본과 세조 11년(1465) 을유자 간행본이 있다.⁴⁴⁾ 을해자본은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완질은 전하지 않고 고려대 도서관에 권2~5, 계명대 도서관에 권4, 공주 동학사에 권4, 6이 있다. 동학사본은 목조여래삼불좌상 복장 전적 7건(일괄 보물 제1720호) 중 1건이다. 세조 11년(1465) 을유자본은 세조가 원각사(圓覺寺)를 준공⁴⁵⁾하고 을유자로 간행한 것으로, 이 때 구결을 찍고자 주성한 한글 활자를 을유한글자라고 한다. 이 판본은 언해가 없고 대문(大文)과 요해 부분에 한글 구결을 붙인 언토본이다. 서문은 「원각경략소」, 배후의 「원각경략소서」, 종말의 「원각경서」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권상, 권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상은 一之一~二, 二之一~三의 5권이고, 권하는 一之一~二, 二之一~二, 三之一~三의 6권으로 총 11권이다. 을유자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보물 제1514호), 아단문고(보물 제1219-1호), 광덕사(보물 제1219-2호), 취정사(보물 제1219-3호), 월정사 성보박물관(보물 제793-11호), 성암고서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3종, 동국대 도서관에 총 12종이 전해진다.

4.1.2 왕실 간행본

세조대에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현재 『묘법연화경』 2종이 전해진다.

첫째, 세조 1년(1455)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세종 4년(1422)에 대자암(大慈庵)에서 간행된 판본의 후쇄본이다. 대자암 간행본은 권말에 있는 변계량(卞季良), 정암(定庵), 무준(無準) 등의 발문에 의하면 성억(成抑)이 성녕대군(成寧大君, 태종의 넷째 아들)과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명복을 빌고자 사촌 성달생에게 부탁해 판하본을 필사하게 하였는데 이를 정암이 발원하여 대자암에서 간행한 것이다.⁴⁶⁾ 세조 1년(1455) 간행본은 권7 말에 저본인 대자암본의 발문에 이어 학조의

44) 세조대 『원각경』은 모두 네 차례 간행되었다.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한문본이 도서관에서 을해자로 간행되었고, 세조 10년(1464)에는 함허당 득통의 주해가 있는 한문본이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세종 11년(1465)에는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같은 해 또 다시 주자소에서 을유자본을 간행하였다. 판본인 간경도감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 세조는 세조 10년(1464)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법회(圓覺法會)를 행하였을 때 사리 분신을 보고 상서(祥瑞)라 하여 흥복사(興福寺)를 중건하여 원각사를 삼을 것을 명하였는데 이듬 해 4월 원각사가 낙성되자 직접 방문하여 경찬회(慶讚會)를 열고 어정구결(御定口訣)하고 번역한 『원각경』을 전경(轉經)하였다. 또한 세종 13년(1467)에 완성된 원각사 10층 석탑(국보 2호) 내에 『원각경』이 봉안되었다. 경찬회 전경 시 사용한 『원각경』과 탑 내에 봉안된 『원각경』은 모두 간경도감 간행의 언해본으로 추정한다(옥영정(2008)).

46) “仁順府尹成公爲誠寧大君板刻法華經藏之于大慈菴之側請予跋予惟昭頃公之早世一國之人所共病悼 況爲成公也 歲世之人能以佛氏之書冥福者舉皆印之寫之而已 … 永樂壬寅(1422)二月日 … 卞季良 跋.” / “發源 蓮經七部 衆經中尊 高出三乘 廣攝九部 生逢末運 慶遇斯典 以恭以敬 倩寫倩刊 願因是因 轉障成道 流通此教 以永其傳 若見若聞 或信不信 同馭白牛 齊登覺路 我此願王 究竟如空 仰惟三寶俯賜證明 道人 定庵.” / “道人定庵者欲

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데, 동궁(의경세자)의 빈인 한씨(후의 인수대비)가 어머니인 좌의정 한확(韓確)의 부인 홍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기존 목판을 사용하여 10부를 인출한 것이다.⁴⁷⁾ 현재 1종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권1~7의 7권 7책으로 각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다.

둘째, 세조 5년(1459) 견성암(見性菴)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광평대군(廣平大君, 세종의 다섯째 아들)의 부인 신씨(申氏)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신씨는 명나라 내부에서 계환의 주해가 없는 무주법화경을 구해 이를 저본으로 주상과 왕비, 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⁴⁸⁾ 권수에 변상도가 있다. 개인소장 권1, 2, 5의 3권 1책이 전해진다.⁴⁹⁾

5.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 왕실 발원본 분석

5.1 예종 시대 간행본

예종 시대는 예종 2년(1469) 『지장보살본원경』 1종이 전해지는데, 정의공주(貞懿公主, 세종의 둘째 딸)가 남편 안맹담(安孟聃, 1415~1462)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하였다. 김수온이 쓴 발문에 의하면, 정의공주는 안맹담의 명복을 빌고자 『수륙의문(水陸儀文)』, 『결수문(結手文)』, 『소미타참(小彌陀譚)』, 『묘법연화경』을 새기게 했다.⁵⁰⁾ 『지장보살본원경』은 목판본으로 권상, 중, 하(보물 제966호) 3권 1책을 관문사에서 소유하고 구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권수의 변상도는 석가모니 설법도가 있으며 이어 대왕대비, 인수왕비, 왕대비, 주상전하, 왕비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패기(牌記)가 있으며, 위태천상(韋太天像)을 수록하였다. 발문 끝에 ‘留置于願刹三角山道成菴’이란 기록이 경판(經板)을 정의공주의 원찰인 도성암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시주질에 이어 각수질에는 권돈일(權頓一), 사부귀(史富貴), 고말중(高末終), 고산(高山), 박군실(朴群實), 이장손(李長孫), 김

向生死海裏引人天魚置涅槃岸托此蓮華王以爲鉤頭遂以此板而新之以廣其傳 元敬王太后 聞其事而嘉其志欲爲主上殿下永享五福 昭 頃公之靈高樓九蓮抽衣貨幹其辦 諸善檀那又從而影響焉者頗衆嗚呼千歲下一段奇事後之學者如欲荷擔大事直須向定菴垂手處好翻身一擲苟如是則 太后之願定菴之志庶乎不墜地矣菴托仁順府尹成君抑求予跋予以不才不堪措詞三請元勳是不辭而爲之 書簪龍壬寅(1422)春三月日 涵虛堂守伊 無準 敬跋。”

47) “景泰七年(1456)十月日 我東宮嬪韓氏 爲先考妣右議政韓確夫人 洪氏超生極樂之願 成此大乘經典 十部 流布人間 惟此連經衆部尊功德之勝恒沙莫量 則韓相國兩位見佛聞 法永脫塵勞者 無可疑矣 景泰七年 丙子(1456)十月日 山人 學祖 謹跋。”

48) “法華一經有單有註 我國所行率皆戒環疎而單法華則止於大藏之餘爾也 廣平大君夫人申氏得內出唐本無註者一本 字劃甚楷大小適宜於是爲 主上殿下萬萬歲 中宮殿下萬萬歲 世子低下千春之願開刊於見性菴以天順三年(1459)四月有日肇 功其年六月告訖 … 是年七月初五日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臣 金守溫奉教撰。”

49)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50) “良孝公之也貞懿公主自喪及葬必誠必信 … 於是出財若粟付幹善釋重水陸儀文結手文小彌陀譚又以妙法蓮經 … 己丑六月下澣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金守溫跋。”

산수(金山守), 귀원(貴原) 등 8명의 각수명이 있다.

5.2 성종 시대 간행본

성종 시대 왕실 발원본은 총 19종으로, 경전류 8종, 장소류 3종, 의식의례집 4종, 선종 관계류 4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원각경』, 『몽산화상법어약록』, 『묘법연화경』, 『금강경삼가해』, 『영가대사 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의 5종은 언해본이다. 시기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종 원년(1470)에는 『묘법연화경』과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가 간행되었다.

『묘법연화경』은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예조,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권1, 2(보물 1147-2호, 천장사 소유)를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권3~4, 5~7의 5권 2책(보물 1147-1호)은 아단문고에서, 권5~7의 3권 1책(보물 1147-3)은 본각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은 이후 인수대비에 의해 여러 차례 인출되는데, 성종 13년(1482) 후쇄본 권7 말에는 성종 원년(1470)의 김수온이 쓴 발문이 있고, 이어서 강희맹의 발문이 있다.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⁵¹⁾ 인수대비가 외동딸 명숙공주(明淑公主, 1455~1482)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 원년본을 다시 인출하였다. 현재 삼성박물관 리움에 권6, 7의 2권 2책(보물 제936호)이 소장되어 있다. 성종 19년(1488)에는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딸 순숙공주(順淑公主, 1478~1488)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 원년본을 다시 인출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권5~7의 3권 1책(보물 제950호)이 전해진다. 연산군 원년(1495)에도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다시 인출하였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권1~2, 권5~7의 5권 2책이 전해진다. 성종 원년의 발문에 이어 연산군 원년 복암(福菴)이 쓴 발문이 있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륙재 의식의 절차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으로, 『결수문』이라고도 하는데 절차나 방법 외에 ‘결수(結手)’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도상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발원하고 아들인 영순군(永順君)이 필사하여 견성사(見性寺)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듬 해 영순군이 죽자 명복을 빌고자 인출한다. 일반적 왕실 발원본과는 달리 국왕과 왕실의 수복을 비는 내용 없이 광평대군 일가의 수복을 빌고 있다. 수륙재 관련 의식집으로 현전하는 판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현재 호림박물관에 1종이 전해진다(보물 1105호). 권말에 영순군이 쓴 발문, 광평대군, 무안군(撫安君), 신자수(申自守) 등의 영가문(靈駕文)과 각수 김록동(金魯童), 김귀손(金貴孫), 김천동(金千同) 등의 이름과 신미, 학열, 학조 등 200여 명의 시주자 명단과 김수온의 발문, 간기와 함께 대공덕주(大功德主) 신씨 혜원(慧圓)⁵²⁾이라는 기록과 장서인이 찍혀 있다.

51) “乃捨公主匭具命印法華經.”

52) 成化六年(1470)庚寅六月日 大功德主永嘉府夫人申氏慧圓

둘째, 성종 3년(1472) 인수대비는 세조와 덕종, 예종, 예종비, 예종의 장남 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을 빌고 대왕대비, 성종, 성종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총 29종 2,815부의 불전을 인출하였다. 이 중에는 간경도감본의 중간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인출한 판본은 모두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이 쓴 발원문이 있다. 현재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 『묘법연화경』 언해본, 『원각경』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본, 『묘법연화경삼매참법』, 『불조역대통제』, 『선종영가집』, 『육경합부』 9종이 전해진다. 간경도감본의 후인본이 5종, 그 외 판본 4종이다.

간경도감본의 후인본 5종은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 『묘법연화경』 언해본, 『원각경』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본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은 세조 8년(1462) 간행본을 후인한 것으로, 『반야바라밀다심경소』는 고려 선종 10년(1093) 간행본을 저본으로 간경도감에서 중간한 것이다.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고려 때 원간기⁵³⁾와 함께 간경도감의 중수 기록⁵⁴⁾이 있으며, 권말 김수온의 갑인소자 발문이 있다. 『진실주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권 상, 중, 하의 3권 1책(보물 제1014호)이 전해진다. 『묘법연화경』 언해본은 세조 9년(1463) 간경도감본의 후인본으로, 현재 권7(보물 제1225호) 1종이 중앙승가대학에 전해진다. 『원각경』 언해본은 세조 11년(1465) 간경도감본을 후인한 것으로 현재 동국대 도서관에 총 3권 중 2책이 결질인 1권 1책의 1종이 전해진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세조 13년(1472)본의 후인본으로, 성종 3년(1472) 6월에 200부를 인출하였다. 해각존자 신미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간경도감본에는 권수제 다음에 ‘해각존자신미역해(慧覺尊者信眉譯解)’가 적혀 있다.⁵⁵⁾ 성종 3년본에는 역해자 표시가 없고, 권말에 김수온의 발문이 있다. 현재 자비사 소장본(보물 제1012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보물 제769호), 개인소장본의 3종이 전해진다.

간경도감본 후인본 외의 판본은 모두 4종으로, 『묘법연화경삼매참법』, 『불조역대통제』, 『선종영가집』, 『육경합부』이다.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은 성종 3년(1472) 20부를 인출하였는데, 현재 2종이 전해진다. 권상은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일괄 보물 제959호) 중 한 건이고, 권하는 구인사에 소장(보물 제1162호)되어 있다. 절첩본 형식을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불조역대통제』는 성종 3년(1472) 30부를 인출하였는데, 현재 22권 7책의 완질본 1종이 용화사에 전해진다. 권22의 표지 안쪽 묵서 기록에 의하면 묵담(默潭)이 세상을 떠난 스승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간직해온 것이 현재 용화사 주지 스님에게 전해졌다. 『선종영가집』은 본래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200부를 후인한 것으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2권 1책(보물 제1297호) 1종이 전해진다. 권말에는 ‘충주청룡사유판(忠州靑龍寺留板)’이라는 원간기가 있고 이어서 김수온의 발문이 있다. 원본은 고려 때 나옹혜근(懶翁惠勤)의 제자 환선(田禪)이 이방직(李邦直)의 도움을 받아 고려 우왕 7년

53) “大安九年(1093)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54) “天順六年(1462)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55) 기운혜(2012)는 간경도감본이 폐지된 후 역해자 표시가 삭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보물 제769호)의 역해자 표시가 보이는 이유는 제1장이 본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381)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육경합부』는 세종 22년(1440) 정암(定菴)이 시주하여 간행한 판본을 다시 인출한 것으로, 성종 3년(1472) 6월 500부를 후인하였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아미타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6종의 경을 합한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권말에 원간기인 ‘華岳山永濟菴開版’과 ‘施主定菴正統五(1440)年庚申’의 기록이 있다. 현재 상원사(보물 제793호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 한 건), 구인사(소유 성룡사, 보물 제965-2호), 정각사(보물 제965-1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전해진다.

셋째, 성종 5년(1474) 정희대왕대비는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지장보살본원경』 3종을 간행하였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0말 발문에 의하면 정희대왕대비가 공혜왕후와 세종과 소현왕후, 세조, 덕종, 덕종비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시주질⁵⁶⁾에는 주상전하와 여러 공주, 인수대비, 귀인, 숙빈, 숙의, 안순왕후 등이 보이고, 이어서 감역(監役)을 담당한 내수사 별좌(別坐) 호종실(扈從實) 등과 각수 권돈일(權頓一), 장막동(張莫同), 고말종(高末終), 김천동(金千同) 등이 보인다.⁵⁷⁾ 『예념미타도량참법』은 현재 4종이 전해진다. 목아박물관에 권6~10(보물 제1144호)의 5권 1책, 국립중앙박물관에 권1~10의 10권 2책(보물 제949호), 고려대 도서관에도 권1~10의 10권 2책 완질본, 개인소장본 권3~4, 7~8의 4권 2책(보물 제1165호)이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현재 1종이 전해지는데, 권1~5의 5권 1책(보물 제1193-1호)을 한술제지(主)에서 소유하고 있다. 성종 12년(1481) 후인본⁵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해지며, 성종 19년(1488) 후인본인 권6~10의 5권 1책(보물 제1193-2호)이 원각사에 전해지는데, 후인하면서 덧붙인 을해자로 찍은 인출기와 간기⁵⁹⁾가 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건성사에서 간행하였는데, 광평대군 부인 신씨와 아들 영순군이 세조와 대비의 수복과 광평대군의 극락왕생을 빌고자 간행을 준비하였던 것을 간행한 것이다.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호림박물관에 권상, 중, 하(보물 제1104호) 3권 1책, 고려대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권상, 중, 하를 소장하고 있다. 송광사 정보박물관에는 이 판본의 성종 10년(1479) 중간본⁶⁰⁾이 전해지며, 동국대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 성종 16년(1485) 중간본⁶¹⁾이 전해진다.

56)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安順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 崔氏 等

57) 監役 內需司別坐 扈從實, 掖庭署司案 白守和, 內需司典貨 朴揚春 / 唱準 別監金終萬 / 書員 白終麟, 李長孫 / 刻字 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等

58) 後印跋: 龍集辛丑(1481)九月日 仁惠王大妃韓氏跋

59) 刊記: 弘治元年(1488)七月日

60) 刊記: 成宗十年(1479) 申氏願堂 見性寺, 金守溫跋

61) 刊記: 成化二十一年(1485)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尼信環



<그림 3> 성종 5년(1474) 『에념미타도량참법』 권수 삼세불(三世佛)(위), 권10말 발문 및 시주질(아래) (보물 제949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넷째, 성종 13년(1482) 간행본은 『금강경삼가해』 인쇄본과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 인쇄본 2종이 전해지는데, 세조가 국역하고 교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대비가 승려 학조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고 내수사(內需司)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강경삼가해』는 한문본 『금강경오가해』 중 야부(冶父)의 송, 종경(宗鏡)의 제강, 득통의 설의 등 삼가의 주해를 뽑아 구결을 달고 국역하여 5권 5책을 정축자로 300부 인출한 것으로, 한계희와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대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자와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한 것을 마치지 못한 것을 성종대 완성한 것이다. 본문의 대자는 정축자로, 중·소자는 을해자로 인출하였다. 현재 5종이 전해지는데, 권1, 5의 2권 2책(보물 제772-1호)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권2, 3, 4, 5의 4권 4책(보물 제772-2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1(보물 제772-3호)은 보림사, 권2(보물 제772-4호)는 계명대 도서관, 권3, 4는 성암고서박물관에 전해진다. 『영가대사

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은 을해자본으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5종이 전해진다. 권상, 하의 2권 2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개인소장으로 전해지며, 고려대 도서관에 권하 2종, 개인소장의 권하 1종이 전해진다.

다섯째, 성종 14년(1483)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安順王后, ?~1498)는 정희대왕대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재를 들여 『묘법연화경』, 『자비도량참법』, 『약사여래경』, 『육경합부』를 각각 33부씩 간행하고 정인사(正因寺)에서 전경불사를 행하였다.⁶²⁾ 이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전해지는 『육경합부』의 권말 발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다.

여섯째, 성종 16년(1485)에는 인수대비에 의해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두 판본은 세조대 간행된 다른 언해본들과는 체제가 다른데, 다른 언해본들이 원문을 한 대문씩 단락을 짓고, 원문의 구결문을 둔 후, 구결문을 바탕으로 대역하는 언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두 판본은 구결문이 없고, 변상도와 경의 원문을 두고 뒤쪽에 언해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⁶³⁾ 또한 경의 원문과 변상도 부분은 목판으로, 언해 부분은 을해자로 인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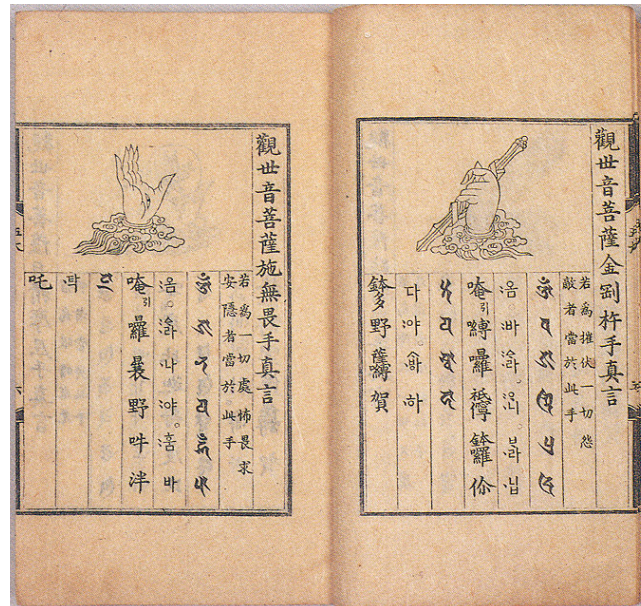
『불정심다라니경』은 권말 학조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가 다라니의 영험으로 성종의 장수를 빌기 위해 당(唐)본을 본떠 그림을 그리고 해서로 필사하여 간행하였다.⁶⁴⁾ 구성은 권상, 중, 하에 이어서 학조의 발문이 있고, 각 권의 언해 부분이 이어진다. 권수에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있고, 좌측 위패(位牌)에는 ‘宗昌磐石 王道弥隆 惠日長明 法周沙界’라는 기록이 있다. 본문 상단에는 경전의 내용을 축약해 표현한 삽도가 있다. 권말에는 위대천(韋駄天) 신장상(神將像)이 그려져 있다. 원문의 목판본 판식은 사주쌍변이고, 언해 부분 을해자본은 사주단변이다. 현재 2종이 전해지는데, 호림박물관(보물 제1108호)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진언』은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여섯 편의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대진언’이라고 할 때 다섯 편은 세 번째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를 제외한 것이다. 『영험약초』가 합철(合綴)되어 있는데, 『영험약초』는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네 편 진언의 이적(異蹟)과 영험담(靈驗談)을 담은 책이다. 『영험약초』의 원문 부분과 언해 부분 사이에 있는 학조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민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행되었다. 본문은 진언을 범자(梵字)로 적고 행을 나란히 하여 정음으로 음역(音譯)을 달고, 이어서 한자를 적고 있다. 현재 4종이 전해지는

62) “維成化十九年(1483) 春三月 我大王大妃殿下 幸溫陽溫泉 疾彌留 歲三日晦日 薨于正寢 我仁惠王大妃殿下 侍側心切哀 哀念報効勞 捐私財 願成法華經, 懺經, 藥師經, 六經各三十三部 於六七之間 轉讀於正因寺 … 成化十九年(1483)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

63) 김무봉,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문화』 제45집(2008).

64) “我仁粹王大妃殿下 爲主上殿下 睿算靈長 消殄魔怨 爰命工人 効唐本祥密而圖之 楷正而寫之 鏤而刊之 以壽其傳 蓋益自利他 … 成化二十一年乙巳(1485) 春二月 比丘臣 學祖謹跋.”

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 한 건(보물 제793-5호, 소유 상원사)을 월정사 정보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⁶⁵⁾은 『영험약초』가 합철되어 있지 않고, 훼손이 심해 하단을 보수하였다.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다.



<그림 4> 성종 16년(1485) 『오대진언』(보물 제793-5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5.3 연산군 시대 간행본

연산군 시대 왕실 발원본은 총 4종으로, 의식의례집 『진언권공』 언해본과 『천지명양수륙잡문』의 2종, 선종 관계류는 『선종영가집』 언해본,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본의 2종이 간행되었다. 인수대비와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출하였다. 이때 왕실의 내탕금으로 부족한 목활자 및 한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를 인경자(印經字)라 하고, 그 활자로 발문을 찍어 권말에 동일하게 붙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산군 원년(1495)에는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출한 불교전적은 『묘법연화경』 언해본 50부, 『능엄경』 50부, 『금강반야바라밀경육조해』 60부, 『반야바라밀다심경』 언해 60부, 『선종영가집』 언해본 60부, 『석보상절』 20부, 『금강경오가해』 50부, 『육경합부』 300부의 8종 650부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선종영가집』 언해본이 전해진다.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세조 10년(1464)

65) 김무봉(2011)은 후쇄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경도감본을 다시 인출한 것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권하(보물 제1163호)가 전해진다.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중 권상은 간경도감 원간본으로, 권상, 하의 2권 2책이 보물 제744-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연산군 2년(1496)에는 『천지명양수륙잡문』 200부, 『육조대사법보단경』 300부, 『진언권공』 400부 등을 원각사에서 인출하였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은 『중례문(中禮文)』이라고도 하는데, 표제는 「수륙잡문(水陸雜文)」이고, 권수에 「아미타불정토상생지도(阿彌陀佛淨土上生之圖)」의 변상도의 삽도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전해진다. 『진언권공』 언해본은 현재 경기도박물관(보물 제1053호)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전해지는데, 권말 발문에 의해 연산군 2년(1496)에 『진언권공』 400부와 『육조대사법보단경』 300부가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⁶⁾ 발문을 쓴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으나 연산군 원년 『선종영가집』 언해본의 학조의 발문에 따라 학조임을 알 수 있다. 『진언권공』에는 「삼단시식문(三檀施食文)」이 실려 있는데,⁶⁷⁾ 『진언권공』 부분 판심제는 「공양(供養)」이고, 「삼단시식문」 부분 판심제는 「시식(施食)」이다.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본은 현재 5종이 전해지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권상, 산기문고에 권상, 중, 호암미술관에 권상, 중, 성암고서박물관에 권상, 개인소장의 권상, 중이 있다. 명종 6년(1551)의 번각본 권중, 하가 개인소장본으로 전해져 권하의 내용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 현황을 조사하여 사성 및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은 총 56종이 현전한다. 시기별로 성종대가 19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세조대 17종, 세종대 11종, 연산군대 4종, 태종대 3종, 문종대와 예종대는 각 1종이 전해진다. 56종을 주제별로 종합해보면, 경전류가 29종으로 가장 많고,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가 10종, 의식의례집 6종, 장소류 6종, 한국찬술류가 5종이다. 이 중 한글 편찬본은 3종, 국역본은 11종이다.

둘째, 시기별 왕실 발원본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대에는 태상왕 태조의 명으로 태종 1년(1401) 『능엄경』, 『묘법연화경』 2종을 간행하였다.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은 태조와 정종, 주상의 수복,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사성하였다.

66) “... 若六祖大鑑禪師 言簡理豐 祖席中卓然傑出 故古人稱語錄 爲經者 良有以也 我仁粹大王大妃殿下 ... 命僧以國語翻譯六祖壇經 刊造木字 印出三百件 頒施(當世 ... 且施食勸供 ... 詳校得正 印出四百件 頒施中外焉 弘治九年夏 五月日 跋.”

67)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을 합쳐 『시식권공(施食勸供)』이라고도 한다.

세종, 문종대에는 세종 명찬본 4종, 왕실 발원 사경 3종과 경전 5종이 있다. 세종 명찬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응기』, 『묘법연화경』으로 모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15세기 국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서지학적으로 한자는 ‘갑인자 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를 새로 주조하여 사용한 귀중한 판본이다. 왕실에서는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가 발원한 『백지금니금강반야바라밀경』과 효령대군이 발원한 『백지묵서부모은중경』과 『백지묵서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있다. 명빈 김씨는 『부모은중경』,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고, 안평대군은 『묘법연화경』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을 간행하였다. 세종의 막내아들 영응대군은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본원경』을 간행하였다.

세조대에는 세조 3년(1459)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간행본 중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묘법연화경』의 6종이 전해진다. 세조 5년(1459)에 간행한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증보·수정하고 이를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세종대 원본과 문장 및 표기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민정음 초기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세조 7년(1461) 을해자로 간행한 『능엄경』 언해본은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간행한 것이다. 『원각경』은 을해자로 간행한 한문본과 을유자로 간행한 언토본이 있다. 또한 의경세자의 비 한씨와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발원한 『묘법연화경』 2종이 전해진다.

예종대에는 예종 2년(1469) 정의공주가 남편 안맹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지장보살본원경』이 전해진다.

성종대는 성종 원년(1470)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예조,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묘법연화경』과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광평대군 일가의 수복을 빌고자 발원하여 건성사에서 간행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가 전해진다. 성종 3년(1472)에는 인수대비가 선왕과 왕비, 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고 정희대왕대비, 성종, 성종 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불교서적 9종이 전해진다. 성종 5년(1474)에는 정희대왕대비가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지장보살본원경』 3종이 전해지는데, 성종과 여러 공주, 인수대비, 안순왕후 등 왕실 구성원이 함께 시주하였다. 성종 13년(1482) 간행본은 『금강경삼가해』 언해본과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 언해본이 전해지는데, 세조 때 국역하고 교정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대비가 학조에게 교정하게 하고 내수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성종 14년(1483) 안순왕후는 정희대왕대비의 명복을 빌고자 사제로 『육경합부』를 간행하였다. 성종 16년(1485) 인수대비는 학조가 국역한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연산군대에는 인수대비와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 내탕금으로 인경자(印經字)를 만들어 원각사에서 간행한 『선종영가집』 언해본과 『천지명양수륙잡문』,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본, 『진언권공』 언해본이 전해진다.

위와 같이 조선 전기 왕실 발원본은 왕실 구성원의 무병장수 및 명복을 빌기 위한 공덕용 불사로서 사성 및 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선시대 불교사상과 지식을 계승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글 편찬본과 국역본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에게까지 전달되어 불교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참고문헌>

1. 문헌

- 강순애.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3에 관한 研究: 그 構成과 底經을 中心으로.” 『서지학보』 제8집(1992). 3-26.
- 강순애. “새로 발견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 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16집(1998). 95-125.
- 강순애.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63-96.
- 강순애. “初槧本 『月印釋譜』 권15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5집(2003). 129-167.
- 강순애.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27-61.
- 강순애. “연세대 소장의 초참본 『月印釋譜』 卷13. 卷14에 관한 연구: 그 底本 經典과 構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38집(2007). 225-267.
- 고종호.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 실행과 사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 곽동화. “『楞嚴經』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7.
- 기윤희. “조선 전기 인수대비 간행 불서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 김기중.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서지학연구』 제30집(2005). 151-182.
- 김기중. “月印千江之曲의 底經과 文學적 성격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 김무봉. “『육조법보단경언해』 연구.” 『불교학연구』 제14집(2006). 91-128.
- 김무봉.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문화』 제45집(2008). 351-394.
- 김무봉. “『영험약초언해』 연구.” 『동악어문학』 제57집(2011). 5-47.
- 김미경.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0.
- 김영리. “조선시대 활자본 불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영배, 김무봉. “朝鮮 初期의 譯經: 最初의 譯經 『釋譜詳節』을 중심으로.” 『大學思想』 제5집(2002). 9-44.
- 김자현. “朝鮮前期 佛教變相版畫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 김정희. “조선시대 왕실불사(王室佛事)의 재원(財源).” 『강좌미술사』 제45권(2015). 229-259.
- 김종민.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教美術』 제12호(1994). 177-232.
- 박도화. “15세기 후반기 왕실발원 판화: 정희대왕대비 발원본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제19집(2002). 155-183.
- 송일기.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關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9집(2000). 179-218.
- 송일기.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119-146.
- 송일기.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167-197.
- 송일기, 정왕근.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집 1호(2015). 223-246.
- 송일기, 정왕근. “麗代鮮初의 17字本 『法華經』 板本 研究.”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347-370.
- 오은주. “朝鮮 15世紀 王室發願 佛像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제20집(2008). 21-25.
- 옥영정.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홍두선 기증 古書의 현황과 그 가치.” 『서지학보』 제38집(2011). 157-186.
- 옥영정.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사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승격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7).
- 유근선. “『석보상절』 권 6, 9, 13, 19의 한자음 교정.” 『韓民族語文學』 제67집(2014). 5-23.
- 윤혜영. “金敏榮 所藏 佛書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8.
- 이봉춘. “조선 전기 송불주와 홍불사업.” 『불교학보』 제38집(2001). 43-65.
- 이종권. “조선조 국역불서 간행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종찬. 『(역주) 사리영웅기』.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3.
- 이화숙. “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장충식. “朝鮮時代 寫經考.” 『한국미술사학회』 제204호(1994). 71-99.
-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천혜봉. “조선 전기 불서 판본.” 『서지학보』 제5집(1991). 3-43.
-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5.

2. 웹사이트

- 국가기록유산 [2017. 12. 3] <www.memorykorea.go.kr>
- 국가문화유산포털 [2017. 12. 3] <www.heritage.go.kr>
- 문화재청 [2017. 12. 3] <www.cha.go.kr>
- 한국고전전중합목록시스템 [2017. 1. 12] <www.nl.go.kr/korcis>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017. 1. 12] <www.koreanhistory.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2017. 11. 3] <lib.aks.ac.kr>

